



B O A R D O F S T U D I E S
NEW SOUTH WALES

2011

**HIGHER SCHOOL CERTIFICATE
EXAMINATION**

Korean Continuers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and Part B)**

Transcript

Familiarisation Text

민호: 오늘 미술반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9학년 모두는 학교에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종이접기를 배웠는데, 오늘 우리반은 토끼접기를 했어요.

영희: 재미있었겠어요. 우리 10학년 반은 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춥고 비가 와서 좋은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면서 검은 뱀을 봤어요. 나는 뱀을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는 뱀이 길에서 없어질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옷이 비에 젖어서 아주 추웠어요.

민호: 정말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교실은 따뜻하고 좋았어요. 종이접기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A

Question 1

11학년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모든 11학년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으로 오세요. 이번 여름캠프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거예요.

Question 2

지나: 안녕, 준수. 오랫동안이야. 잘 지냈어?

준수: 응. 그런데 나는 그동안 좀 바빴어.

지나: 왜?

준수: 다음 주 수요일에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 너는?

지나: 나도 바빴어. 다음 주 주말에 한국의 날 페스티벌에 가.

준수: 한국의 날 페스티벌? 네가 거기서 뭐 해?

지나: 아르바이트 해. 너도 할래?

준수: 응, 나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에서 해?

지나: 이스트우드 파크에서 해.

준수: 그래, 좋아. 그런데 제니도 일하러 와?

지나: 잘 모르겠어. 내가 제니한테 전화해서 내일 너에게 알려줄게.

Question 3

리포터: 안녕하세요, 제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문의 김진수 리포터입니다.

제인: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먼저, 오늘 한국어 대회에서 일등하신 거 축하합니다.

제인: 고맙습니다. 한국어 대회에서 일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리포터: 제인 씨는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제인: 지난 3년동안 시드니에서 공부했어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아주 좋아해요.

리포터: 서울이 어때요?

제인: 서울 사람들은 외국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해요. 특히 외국학생들이 한국말을 하면 더 친절하고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서울은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리포터: 서울 어디 가 봤어요?

제인: 어제 지하철 타고 경복궁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한국 민속촌에 갈 거예요. 저는 서울이 아주 좋아요.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Question 4

혜진: 영수 오빠, 아르바이트 구했어?

영수: 응. 그런데 아직 모르겠어. 슈퍼마트하고 피자하우스하고 어디로 갈까 아직 잘 모르겠어.

혜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영수: 슈퍼마트는 피자하우스보다 학교에서는 가깝지만 집에서는 더 멀어. 밤에 늦게 끝나고 집에 올 때 기차를 타야 해. 우리집은 기차역에서 멀어.

혜진: 그러면 피자하우스에서 일 해.

영수: 하지만 슈퍼마트가 돈을 더 많이 줘. 그런데, 슈퍼마트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해야 돼. 나는 주말에 일하는 거 싫어.

혜진: 피자하우스는?

영수: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가.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편하게 바꿀 수 있어.

혜진: 오빠는 올해 HSC 보기때문에 매일 일하러 갈 수 없어.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한국에 여행가기로 했어.

영수: 네 말이 맞아. 잘 생각해 봐야겠어.

Question 5

준수: 애나, 나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

애나: 응, 얘기 해 봐.

준수: 어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존이 실수로 교실에 있는 프로젝터를 깬어.

애나: 프로젝터를? 누가 봤어?

준수: 아니. 교실에는 우리 둘만 있었어. 그런데, 존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애나: 그런데?

준수: 오늘 아침, 우리 선생님이 화가 많이 났어. 그리고 프로젝터를 누가 깬는지 말 하지 않으면 우리 반 학생 모두가 새 프로젝터를 살 돈을 내야 한다고 했어.

애나: 그래서?

준수: 말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

애나: 뭐라고? 왜 말을 안 했어.

준수: 존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야. 나는 존하고 약속을 했어.

애나: 약속이 진실보다 더 중요해?

준수: 잘 모르겠어.

애나: 그리고 네가 말을 안 하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돼?

준수: 하지만 친구하고 한 약속이 더 중요해.

애나: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Section I — Listening and Responding

Part B

Question 6

진우: 여보세요?

수미: 네, 저는 해나 학교 친구 수미예요. 해나 좀 바꿔 주세요.

진우: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예요. 우리 누나 지금 집에 없어요.

수미: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들어 와요?

진우: 집에 운동하러 갔는데요, 오후 4시 쯤 들어 올 거예요.

수미: 그러면 누나에게 메세지 좀 전해 줄래요?

진우: 네.

수미: 내일 저녁에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집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바빠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가기로 했어요.

진우: 아, 그래요?

수미: 그리고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사야 하니까, 내일 오후 4시에 시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진우: 네, 알았어요.

Question 7

- 김유나: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 매니저: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미술전시회에 안내원으로 신청했네요. 전에 안내원으로 일해 봤어요?
- 김유나: 네. 작년 NSW Youth Conference에서 Volunteer로 일했어요.
- 매니저: 아, 그래요? 올해 몇 살이에요?
- 김유나: 올해 열일곱 살이에요. 고등학교 12학년이에요.
- 매니저: 여가시간에 주로 뭐 해요.
- 김유나: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특히 한국미술을 좋아해요.
- 매니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일 할 수 있어요?
- 김유나: 그럼요. 문제 없어요.
- 매니저: 왜, 이 일을 신청했어요?
- 김유나: 저는 앞으로 미술대학에 가서 한국미술을 전공하고 싶어요. 이번 한국미술전시회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 매니저: 미술전시회장까지 기차나 버스가 없어요. 어떻게 올 거예요?
- 김유나: 저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제 차로 올 거예요.
- 매니저: 이 일을 인터넷에서 알았어요?
- 김유나: 한국신문에서 봤어요.